

# 북한 고등학교 『조선력사』 교과서 ‘머리말~발해와 신라’ 부분의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고찰

---

박찬홍

국회도서관 자료조사관, 한국고대사 전공

siyeo0825@hanmail.net

---

- I. 머리말
  - II.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 및 말씀의 서술 방식
  - III. 단원별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 및 말씀
  - I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9762).

## I. 머리말

---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구별되는 ‘수령체제’이다. ‘수령체제’에서 ‘수령’인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은 마치 성경과 같은 종교적 규정력을 가지고 지배담론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은 ‘규범 제시’, ‘정책적 지침’, ‘사회갈등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sup>1</sup> 1970년대 수령체제가 확립된 이후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은 『조선력사』를 비롯한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교과서 서술의 핵심지침과 서술방향을 제시하였다.<sup>2</sup> 『조선력사』 교과서에서 ‘조선력사’에 대한 거의 모든 해석이나 평가가 김일성의 ‘교시’ 또는 김정일의 ‘말씀’에 의해 연역되고 있으며, 즉 북한의 역사교육은 한마디로 ‘교시’나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는 교육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sup>3</sup> 따라서 『조선력사』 교과서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선력사』 교과서의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찍이 이찬희는 1982년과 1983년 발간된 두 교과서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유시(諭示, ‘말씀’을 ‘諭示’라고 표기했음)의 시기 및 내용에 따라 빈도수를 정리한 뒤 김일성·김정일

- 
- 1 조은성, 「김일성과 김정일 ‘말씀’의 사회통합적 기능: 1990~2000」,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1~4쪽, 29~32쪽.
  - 2 ‘수령의 교시’에 대해 “수령의 사상은 곧 인민대중이 지녀야 할 혁명적 세계관이며 수령의 교시는 전체 인민의 의사이며 수령의 뜻은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의지이다.”라고 언급했다(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백산서당, 1989), 192쪽. 원본은 1985년 발행).
  - 3 지수걸, 「북한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체계와 내용」, 『북한의 역사학』(1)(국사편찬위원회, 2002), 149쪽.

에 대한 개인숭배적 성격을 반영한다고 결론지었다.<sup>4</sup> 또 2001~2002년 발간된 고등중학교 『조선력사』 교과서에 대한 분석에서도, 당성이나 계급성 혹은 역사성보다 ‘교시’나 ‘말씀’을 더 중시하는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맹종하게 하는 교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교시’와 ‘말씀’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선정되었다고 평가했다.<sup>5</sup> 하지만 1982년과 1983년 두 시기의 교과서만을 분석하였고, 전 시기를 다루다보니 개괄적인 검토만 이루어지고 각 시기별로 자세하게 분석하지는 못했으며, 내용을 분류한 기준도 중복되거나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sup>6</sup>

최근 2012년판 중학교 제2학년용 『조선력사』의 근대사 부분을 분석하면서, ‘교시’와 ‘말씀’이 ‘외세의 침략과 봉건왕조의 탄압에 맞선 인민들의 투쟁’이나 ‘조선민족의 우수성’과 관련된 부분에 등장한다고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sup>7</sup> 중요한 핵심을 지적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교과서 내용 전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시’·‘말씀’을 분석한 것이고, 2012년판 중학교 교과서의 근대사 부분에만 한정된 분석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 
- 4 이찬희, 「북한의 역사교육 연구: 「조선력사」 신·구 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3), 179~186쪽.
  - 5 이찬희, 「북한 중학교 『조선력사』 교과서 내용분석」, 『北韓研究學會報』 8-1(2004), 215~216쪽.
  - 6 이찬희는 내용상의 분류 기준을 민족문화와 전통을 중요시한 역사적 사실, 반봉건 계급투쟁, 주체사상과 관련된 반외세투쟁, 사회발전법칙, 유물사관, 기타 등으로 구분했는데, 이들 교과서 내용은 물론이고 ‘교시’와 ‘말씀’ 모두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기타로 분류된 도자기·음악 등도 민족문화에 해당되는 등 분류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한편, 김복영이 『조선력사』 교과서의 미국관(美國觀)을 검토하면서 이찬희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였다(金福永, 「北韓의 「조선력사」 教科書에 나타난 美國觀: 韓國의 高等學校 「國史」 教科書와 比較를 中心으로」, 『社會科教育』 26(2012), 118~119쪽).
  - 7 김도형, 「북한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근대사 서술 분석: 『조선력사』(중학교 제2학년용) 근대사 부분을 중심으로」, 『북한의 역사교육』, 정영순·김도형·정경희·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21~24쪽.

역사 교과서는 아니지만 북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sup>8</sup>, 고등중학교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교시’나 ‘말씀’을 제시하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상화를 시도한다고 본 연구도 있다.<sup>9</sup> 북한에서 ‘수령체제’가 확립된 이후 1990~2000년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와 말씀’이 사회통합적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왔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sup>10</sup>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이 갖는 국가적·사회적 위상과 기능을 시기적으로 검토한 본격적인 연구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면서 북한 고등학교 『조선력사』 교과서의 ‘머리말·발해와 신라’ 부분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 및 ‘말씀’을 검토하려고 한다. 전 시대를 함께 검토할 경우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편의상 시기를 머리말과 ‘원시사회’부터 ‘발해와 신라’까지로 한정하였다. 시기순으로 역대의 『조선력사』 교과서에 수록된 ‘교시’와 ‘가르침’·‘말씀’을 비교하여 검토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려고 한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조선력사』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표1-검토 대상 북한 고등학교 『조선력사』 교과서

	저자	발행연도	서명	출판사
1		1963	『조선력사』(상)	학우서방
2	홍성찬·신예순·강백영	1982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3	홍성찬	1983	『조선력사』(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4	김병룡·리태영	1994(제4판)	『조선력사』(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5	리인형	1995(제2판)	『조선력사』(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6	오영철·한영찬	1999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7	오영철	2001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 8 홍지선, 「북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연구: 『국어문학』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8(2012).
- 9 윤종진, 「북한 고등중학교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정치사상교양’ 내용 연구」, 『국민윤리연구』 47(2001), 115쪽.
- 10 조은성, 앞의 논문.

이들 교과서 가운데 1994년판은 ‘발해와 신라’ 부분만을 서술한 것인데, 원래 삼국시기까지 서술한 1983년판 교과서에 실린 ‘김정일 가르침’과 표기 방식이 같은 것으로 보아 1983년에 함께 발행된 것인 듯하다. 1989년 제3판이 발행되었고, 1994년 제4판이 발행되면서, 삼국시기까지 서술한 1995년판 교과서 내용을 잊게 되었던 것 같다. 따라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교과서는 모두 6책이 된다.

먼저 II장에서는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 및 말씀의 교과서별 수록 개수를 정리하여 시기별, 단원별 특징을 검토하고, 시기별 교과서마다 교시와 가르침·말씀이 어떤 형식으로 수록되었는지 고찰해 보려고 한다. III장에서는 ‘머리말’, ‘원시(공동체)사회’, ‘노예사회’[고조선, 부여, 진국], ‘봉건사회의 성립’ 또는 ‘첫 봉건국가들’[삼국시기], ‘발해와 신라’ 등의 단원별로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 및 말씀을 비교·검토하여 그 특징과 변화상을 추적해보려고 한다.

## II.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 및 말씀의 서술 방식

김일성의 ‘교시’가 『조선력사』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1963년판부터이다. 1953년 6월 발행된 『조선력사』<sup>11</sup>에서도 표지에 ““애국심은 자기 조국의 과거를 잘 알며, 자기 민족이 갖고 있는 우수한 전통과 문화와 풍습을 잘 아는 데서만이 생기는 것입니다.”(김일성)”라고 서술했지만, 이것을 ‘교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

11 김석형·박시형, 『조선력사』(교육성, 1953); (학우서방, 1954)[번각].

김일성은,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선동원 대회에서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사상 사업에서 주체의 확립을 제기하였고<sup>12</sup>,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단일지도체계를 확립했다. 그 뒤 1962년 김석형은 김일성의 '교시'를 역사 연구의 중요 과업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주장했다.<sup>13</sup>

이즈음부터 『력사과학』 논문 첫머리에 김일성의 이름부터 배치하는 등 서술 형식에서도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sup>14</sup> 1979~1980년 발간된 제1판 『조선전사』 1(원시편)~15권(근대편3)<sup>15</sup>에는 각 권의 머리말과 주요 장절의 앞부분을 중심으로 김일성 교시가 수록되었고, 1991년 발간된 제2판 『조선전사』 1(원시편)~5(중세편(발해 및 후기신라사))<sup>16</sup>에는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지적'<sup>17</sup>이 수록되었다. 『조선력사』 교과서에서도 1963년판부터 김일성 교시가 머리말과 본문 안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1982년판과 1983년판 『조선력사』 교과서에 수록된 김일성

- 
- 12 김일성,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김일성선집』 4(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325~354쪽.
  - 13 김석형은, '김일성 동지가 문제 해명의 열쇠를 구체적인 교시으로써 역사가들을 간곡히 일깨워 주셨으며, 역사가들은 김일성 동지가 준 방향적인 교시를 연구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김일성 동지의 교시에 철저히 입각함으로써 우리 인민이 완강한 계급투쟁으로 역사를 진전시켰고, 강대한 외적에 대항해 자주성과 독립을 고수했으며, 독창적인 우수한 문화를 창조하고 고상한 도덕 품성을 견지해 왔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김석형, 「해방 후 조선 력사학의 발전」, 『력사과학』 1962-2(1962), 4~5쪽).
  - 14 김광운, 「북한 역사학계의 구성과 활동」, 『북한의 역사 만들기』,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푸른역사, 2003), 45~46쪽.
  - 15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1(원시편)~15(근대편3)(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1980).
  - 16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고고학연구소, 『조선전사』 1(원시편)~5(중세편(발해 및 후기신라사))(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 17 1991년판 『조선전사』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는 문장 다음에 김정일 논저를 인용한 문구를 수록하였다.

교시나 김정일 가르침은 대부분 제1판과 제2판 『조선력사』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지적’에서 가져온 것이다.

1963년부터 2001년까지 발행된 북한 고등학교 『조선력사』 교과서에서 머리말부터 신라와 발해까지의 내용 가운데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 및 말씀이 인용된 수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먼저 시기별로 볼 때, 1963년판의 김일성 교시는 5개였지만 1982년판부터는 30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것은 수령체제가 확립된 이후의 정황을 반영한 것이다. 김일성의 교시는 1967년 당중앙위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정언명령’으로서 위치를 획득하면서, 이제 김일성의 교시가 유일한 인용근거이자 절대적 집행명령이 되었다.<sup>18</sup> 『조선력사』 교과서에서도 1982년판부터 김일성의 교시가 해당 부분의

표2-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말씀의 수

구분		머리말	원시사회	노예사회	삼국시기	발해와 신라	합					
1963년판	김일성 교시	2			2	1	5	5				
1982년판	김일성 교시	1	6	6	11	6	30	30				
1983년판	김일성 교시	1	4	6	11		22	30				
	김정일 가르침		4	1	3		8					
1994년판	김일성 교시					6	6	8				
	김정일 가르침					2	2					
1995년판	김일성 교시	1	2	3	9		15	22				
	김정일 말씀		1	2	4		7					
1999년판	김일성 교시		1	1	5	2	9	19				
	김정일 말씀		1	1	6	2	10					
2001년판	김일성 교시	1	1	1	6	2	11	22				
	김정일 말씀		1	2	6	2	11					
합		6	14	7	17	6	44	19	17	6	98	38
		6	21		23		63		23		136	

18 조은성, 앞의 논문, 25쪽.

교과서 내용의 핵심과 서술 방향을 가리키는 지침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원별로 보면, 머리말에는 김일성의 교시만이 보이고 김정일의 가르침 또는 말씀은 없다. 김일성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준다. 원시사회, 노예사회, 발해와 신라 부분은 비슷한 숫자를 보이며, 삼국시기 부분은 본문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약 3배 가까이 많다. 시기별로 볼 때 30여 개였던 숫자가 1999년부터 10여개 이상 줄어든 것은 교과서 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가르침은 1983년판 교과서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김일성 교시의 약 1/3 정도의 분량이었다가 1995년판에서는 약 1/2 정도로 늘어났고, 1999년판과 2001년판은 같거나 1개 더 많은 개수가 인용되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뒤 김정일이 수령의 지위를 계승한 정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 단원별 인용 개수나 전체 인용 개수를 비교하면 김정일의 가르침·말씀은 김일성 교시의 약 1/2 정도에 해당하는데, 머리말에 김정일의 가르침이나 말씀은 없다는 사실과 함께 고려하면, 김정일의 말씀은 여전히 김일성 교시를 계승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선력사』 교과서에 서술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 및 말씀은 시기별로 서로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다. 1963년판에서는 “김일성 동지는 <…>(김일성 선집…)라고 교시하였다.”라고 하였다. 김일성에 대한 존칭적 표기나 서술은 보이지 않으며, 김일성 선집을 반드시 표기했다.

1982년판부터는 “위대한 수령(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라고 하여 김일성에 대한 수령 및 원수님 호칭과 더불어 “교시하시였다.”는 높임말을 반드시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령체제가 수립된 1967년 이후의 정황을 반영한 것이다. 1960년 발간된



『조선말사전』(과학원출판사)에서는 ‘교시’를 “가르쳐서 보임”, “지침으로 되는 가르침”으로 정의되었지만, 수령체제가 확립된 『현대조선말사전』(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혀 주신 혁명이 건설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가르치심》을 정중히 높이어 이르는 말”(굵은 글씨는 원문)로 정의되었다.<sup>19</sup>

김정일의 ‘가르침’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3년판인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었다.”로 서술되었다. 김정일을 ‘선생님’으로 호칭하였기 때문에 ‘수령’에게 해당하는 ‘교시’를 쓰지 못하고, “가르치시었다.”로 바뀌어서 서술한 듯하다.<sup>20</sup>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직을 맡은 1993년 무렵부터 김일성은 ‘대원수’ 칭호를 받았고, 1994년판부터 ‘대원수’로 호칭되었다. 김일성이 1994년 7월 사망한 뒤 김정일은 ‘수령’ 호칭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과서에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로 서술되었다. ‘수령’이 되었으므로 “교시하시었다.”로 서술어를 써야 되겠지만, ‘대원수’ 김일성과 같은 지위에서 ‘교시하시었다.’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시었다.”로 바뀌어서 표현하였다. 즉 김일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교시하시었다.’로 표현한 반면, 김정일에 대해서는 호칭의 변화에 따라 ‘가르치시었다.’에서 ‘말씀하시었다.’로 서술어가 바뀌어갔다.

19 위의 논문, 26쪽.

20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김정일이 1980년 1월 11일에 처음으로 ‘당중앙’이라는 암호명으로 나타났고, 1981년 6월 6일에 ‘김정일 동지’라는 직접적인 호칭으로 처음 등장했으며, ‘김정일 동지의 지적’이 인용된 사설은 1983년 8월 15일에 처음 보인다. 특히 김정일의 ‘지적’이 김일성의 ‘교시’와 동일한 비중으로 시작된 때는 1983년 8월이다(廉弘喆, 「최근 10년간(76.7~86.6)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로동신문 사설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1-2(1987), 299쪽). 1983년 9월에 발간된 『조선력사』에 처음으로 김정일의 ‘가르침’이 수록된 것과 시기적으로 같다.

김일성은 ‘동지’에서 ‘위대한(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으로 바뀌었고, 김정일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으로 바뀌었다. 김일성의 말은 일관되게 ‘교시’로 표기되었으며, 김정일의 말은 ‘가르침’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었지만 ‘교시’로 표기되지는 않았다.

### Ⅲ. 단원별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 및 말씀

#### 1. ‘머리말’의 김일성 교시

서론 또는 머리말에 김일성 교시가 처음 수록된 것은 1963년판이고 그 이후 모든 『조선력사』 교과서에 등장했다. 머리말이 게재되지 않았던 1999년판에는 김일성 교시가 보이지 않고 대신, 본문의 제1장 제1절 첫 부분에 김정일 ‘말씀’이 수록되었다. 교과서의 머리말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1963년판 서론에서는 ‘조선 역사 학습의 실천적 의미’를 ‘조선혁명을 잘하기 위해서 조선 역사를 알아야한다.’고 서술했고, ‘자기 조국의 과거와 자기 민족의 우수한 전통 및 문화, 풍습을 알아야 애국심이 생긴다.’고 하였다. 서론에 수록된 김일성의 교시는 ‘조선 역사 학습’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김일성은, 1955년 12월 28일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사상에서의 주체의 확립’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한다는 선언이라고 한다.<sup>21</sup> 1963년판 『조선력사』 교과서 서론에 수록된 김일성

21 오경섭, 『주체사상의 구조와 정치적 기능의 변화』(세종연구소, 2012), 16~21쪽.

표3- '머리말'의 김일성 교시

구분	김일성 교시
1963년판	<p>서론 [조선 역사 학습의 실천적 의의]</p> <p>우리 당 사상 사업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 역사 학습은 우리 혁명을 주체 있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로 큰 의의를 갖는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조선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 역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 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민을 그들의 구미에 맞도록 교양할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향토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나라의 역사, 우리 인민의 투쟁 역사를 연구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그것을 널리 선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김 일성 선집 4권 1960년 판 326페이지)라고 교시하였다.……</p> <p>그러므로 조선 역사 학습은 우리가 모든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의교시를 더 잘 관찰시킴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 김 일성 동지는 《애국심은 자기 조국의 과거를 잘 알며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전통과 문화와 풍습을 잘 아는 데서만이 생기는 것입니다.》(김 일성 선집 3권 1954년 판 240페이지)라고 교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조선 역사 학습은 애국주의 교양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p>
1982년판	<p>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 역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 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p>
1983년판	<p>조선혁명을 잘하려면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p>
1995년판	<p>우리 인민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입니다.</p>
1999년판	<p>제1장 원시공동체사회 제1절 원인들의 생활(2쪽)</p> <p>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입니다.》</p>
2001년판	<p>…… 우리 나라의 역사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이 중요합니다.</p> <p>제1장 원시 공동체사회 제1절 원인들의 생활(3쪽)</p> <p>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입니다.》</p>

의 교시는 '조선 역사 학습'의 목적과 필요성·의의에 대한 독점적 해석을 드러내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조선혁명을 잘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선 역사를 배워야 하며, 조선 역사는 배우는 것은 애국심을 키우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1982년판 머리말에서는 1963년판 교시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조선혁명

'사상에서 주체의 확립'은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도구였다(오경섭, 같은 책, 17쪽).

을 잘하기 위해서 조선역사와 지리, 풍속을 배워야 한다.’는 부분만 수록하였고, 1983년판에서는 더 축약하여 지리와 풍속 부분도 삭제하였다. 그러나 ‘조선역사 학습’의 목적과 필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1995년판 머리말에서는 ‘조선혁명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교시는 사라지고 대신에 첫 문장으로 ‘조선 인민이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이라는 교시를 수록하여 김일성 교시의 지침을 더욱 강조하였다.

‘조선혁명을 위한다.’는 목표보다 ‘조선인민이 슬기로운 인민’이라는 칭송을 머리말 첫 교시로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다. 특히 1990년대 북한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는데,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한소수교와 한중수교로 인한 외교적 고립, 경제적 위기, 연속적인 식량난 등을 겪었다. 김정일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적 쇄신 대신 주체사상의 수령유일체제 정당화 기능을 보완하는 길을 택했고,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제시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북한의 사회주의가 동구 사회주의보다 우월하고 붕괴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며,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수령과 당이 제일이고 당의 지도사상과 사회주의 제도가 제일이기 때문에 조선민족이 사상과 전통, 역사에서 제일이라는 논리를 제시한다.<sup>22</sup>

김정일은, ‘당과 인민의 첫 번째 임무는 조선혁명을 잘하는 것이고, 조선혁명에 충실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며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였다.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을 깔보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며, 우리

---

22 오경섭, 위의 책(2012), 37~40쪽; 임채완, 「北韓의 民族主義 理論과 그 變化推移」, 『정신문화연구』 17-2(통권 55)(1994), 43~50쪽; 徐載鎭, 「북한의 민족주의: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을 중심으로」, 『統一研究論叢』 2-1(민족통일연구원, 1993), 87~94쪽.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큰 나라나 발전된 나라들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sup>23</sup>

즉 1995년판 머리말에서는 김정일이 주창한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근거하여 '우리 인민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이라는 김일성 교시를 수록한 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효성' 및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잘 알 때 더 높이 발휘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1999년판 교과서에는 머리말이 생략되어 있다.<sup>24</sup> 1995년판 머리말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를 약간 수정하여, 본문 제1장 제1절 첫 문장으로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라는 김정일 말씀이 수록되었다. '인민'이 '민족'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1995년판 머리말의 김일성 교시와 같다. 김일성 사망 후 '수령'이 된 김정일의 위상이 김일성을 대체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전까지 김일성 교시가 머리말에 수록된 것에 비해, '수령' 김정일 말씀은 본문의 제1장 제1절의 첫 문장으로 인용된 것은, '수령'의 자리를 승계했지만 '말씀'이 머리말에 수록될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1995년판 머리말에서 서술한 것처럼,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대비되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이라는 '개척자'와 '계승자'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3 김일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543(1987년 7호, 근로자사, 1987), 10~11쪽.

24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소장된 1999년판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에는 목차에 이어 바로 원시공동체사회로 이어져, 머리말이 생략되어 있다.

1999년판 교과서의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을 거의 그대로 수록한 2001년 교과서에서는 다시 머리말에 김일성 교시가 등장한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학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일성 교시는 1983년판까지의 머리말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같은 내용이며, 1999년판 교과서 본문 제1장 제1절 첫 문장으로 서술된 김정일 말씀은 똑같이 그대로 수록되었다. 즉 김일성 교시를 다시 머리말에 등장시켜 김일성 교시의 권위에 기대어 김정일 말씀의 위상을 유지하려고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머리말에는 김일성의 교시만이 수록되었고, 1983년판까지는 ‘조선력사 학습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지만, 1995년에 그 대신에 ‘조선인민이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이라는 교시로 대체되었다. 이후 2001년판에는 ‘조선력사 학습이 중요하다.’는 평범한 교시가 다시 수록되었다.

## 2. ‘원시사회’ 단원의 교시와 말씀

원시(공동체)사회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말씀을 정리하면 다음 표4와 같다.

‘주체의 학습론’에 따르면, ‘역사학습에서 기본은 자주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학습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창조적 활동과정이 인류역사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사회역사 발전의 기본 추동력이 되기 때문이다.<sup>25</sup>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반침략 투쟁·조국방위의 투쟁과 노예제적·봉건적·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을 반대한 인민의

---

25 금성출판사 편, 『주체의 학습론』(금성청년출판사, 1982); (미래사, 1989)[재출판], 71쪽.

표4- '원시사회' 단원의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말씀

구분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말씀	
1982년판	김일성 교시	2-1. 제1절 원시인들의 무리생활 「인류의 발생」(5쪽) 로동이 없는 사회가 유지될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습니다.
		2-2. 제2절 씨족공동체생활 「모계씨족공동체생활」(10쪽) 사람은 로동과정에서 자연을 개조하는 귀중한 경험을 쌓을수 있으며 자기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2-3. 제2절 씨족공동체생활 「부계씨족공동체생활」(15쪽) 오직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로동과정에서만 재부가 창조되고 로동도구가 끊임없이 개량되어나가며 생산력이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할수 있습니다.
		2-4. 제3절 원시공동체사회의 붕괴 「원시공동체사회의 붕괴」(18쪽) 자연과 사회는 다 자기의 발전법칙을 가지고있습니다.
		2-5. 제3절 원시공동체사회의 붕괴 「노예제도의 발생」(20쪽) 리기주의사상은 사적소유에서 생겨났으며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시작된 때부터 착취계급의 사상으로 되었습니다. 리기주의는 아주 나쁜 사상입니다.
		2-6. 제4절 원시공동체사회의 문화(21쪽)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1983년판	김일성 교시	2-7. 제3절 씨족공동체생활 1. 모계씨족공동체생활 「모계씨족공동체생활의 시작」(14쪽) : 1982판 2-2와 같은 교시
		2-8. 제3절 씨족공동체생활 2. 부계씨족공동체생활(22쪽)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날을 따라 깊어지며 인류의 지식과 경험은 계속 풍부해진다.
		2-9. 제4절 원시공동체사회의 붕괴(27쪽) : 1982판 2-4와 같은 교시
		2-10. 제5절 원시공동체사회의 문화(29쪽) : 1982판 2-6과 같은 교시
	김정일 가르침	2-11. 제1절 사람의 발생(6쪽) 수령님께서는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 것을 밝히시였습니다.
		2-12. 제2절 원시무리생활 1. 원인들의 무리생활(8쪽) 인류사회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습니다.
		2-13. 제2절 원시무리생활 2. 고인들의 무리생활(12쪽) 사람은 자기의 생활상요구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실현하여나가는것입니다.
		2-14. 제3절 씨족공동체생활 1. 모계씨족공동체생활 「모계씨족공동체생활의 발전」(16쪽)

		사람은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그에 맞게 개변하며 낡고 변동적인 것은 새롭고 진보적인 것으로 바꾸면서 자연과 사회를 끊임없이 개조해나갑니다.
1995년판	김일성 교시	2-15. 제2절 씨족공동체생활 1. 모계씨족생활(10쪽) : 1983판 2-8과 같은 교시
	김정일 말씀	2-16. 제3절 원시사회의 붕괴(18쪽) : 1982판 2-4, 1983판 2-9와 같은 교시
1999년판	김일성 교시	2-17. 제1절 원시무리생활(4쪽) 사람이 먹고 입고 쓰고하는데 필요한 물질전부(?)는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인간의 로동에 의하여 창조됩니다.
	김정일 말씀	2-18. 제1장 원시공동체사회 제4절 원시공동체사회의 붕괴(11쪽) : 1982판 2-4, 1983판 2-9, 1995판 2-16과 같은 교시
2001년판	김일성 교시	2-19. 제1절 원인들의 생활(2쪽)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김정일 말씀	2-20. 제4절 원시공동체사회의 붕괴(12쪽) : 1982판 2-4, 1983판 2-9, 1995판 2-16, 1999판 2-18과 같은 교시
		2-21. 제1절 원인들의 생활(3쪽) : 1999판 2-19와 같은 말씀

계급투쟁을 말한다. 물질적 부를 생산하고 문화를 발전시켜온 창조의 역사는 노동도구를 개조하고 생산방법을 개선하여 생산력 발전을 추동하고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산 활동과 우수한 문화와 과학기술을 창조하여 우리 민족이 가장 근면·충명·재능 있는 인민이라는 높은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역사를 말한다.<sup>26</sup>

『조선력사』 교과서도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게 구성, 서술되었고,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도 여기에 맞게 수록되어있다. 원시(공동체)사회에서는 모두 창조의 역사 부분에 대한 교시와 말씀이 수록되어 있다.

1982년판에서는 원시 무리생활에서 모계 및 부계 씨족사회들 거쳐 노예 제도의 발생에 이르기까지의 각 중요한 과정마다 김일성 교시가 수록되었다. 수록된 6개의 김일성 교시 가운데 5개는 노동의 주요성과 의미·역할,

26 위의 책, 71~72쪽.



역사 발전 법칙,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며, 1개는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원시사회로까지 소급하여 자랑한 것이다. 이러한 김일성 교시 뒤에는 교시의 내용과 어울리는 본문이 서술되어 교시에 조응하고 있다. 다만 김일성 교시는 본문 중간에 수록된 경우도 꽤 있어, 이후의 교과서처럼 각 장이나 절 제목 다음에 본문 첫 문장으로 나오는, 획일화된 형식을 아직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

1983년판에서는 김일성 교시가 2개 줄어들어 4개이고, 김정일 가르침이 새로 4개 수록되었다. 김일성 교시 4개 가운데 3개는 1982년판과 같은 것이고 '부계씨족공동체생활'에 수록된 목적의식적인 노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시(2-3)가 인간의 인식에 대한 교시(2-8)로 교체되었다. 1982년판의 김일성 교시 가운데 '인류의 발생' 부분에 수록된 노동의 의미에 대한 교시(2-1)는 1983년판의 '사람의 발생' 부분에서 김정일 가르침(2-11)으로 대체되었고, 이기주의 사상에 대해 비판한 교시(2-5)는 삭제되었다.

2-11은 김정일이 1982년 3월 31일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인용한 것으로<sup>27</sup>, 『조선력사』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수록된 김정일의 가르침이다. 김정일이 직접 말한 내용이 아니라 김일성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첫 번째 명제와 함께 주체사상의 두 번째 명제인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sup>28</sup> 김일성이 밝혔다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는 주체사상의 핵심 명제를 전면으로 드러내 수록했다. 김정일의 가르침이 처음 수록된 형식이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했다는 것은 김일성의 계승자로서 김정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

27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5쪽.

28 이종석, 『북한의 역사』 2(주체사상과 유일체제 1960~1994)(역사비평사, 2011), 103쪽.

통해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를 완성하면서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김정일이 독점했다는<sup>29</sup>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12~2-14까지 3개의 김정일 가르침은 주체사상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1982년판에 비해 1983년판에 주체사상의 주요 내용들이 대폭 반영되었고, 특히 김정일 가르침으로 수록된 점이 주목된다.

1995년판에서는 김일성 교시는 2개, 김정일 말씀은 1개로 대폭 줄어드는데, 이것은 교과서의 분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일성 교시 가운데 ‘모계씨족생활’에 수록된 교시(2-15)는 1983년판의 ‘부계씨족공동체생활’에 수록된 교시(2-8)를 소단원의 위치를 바꾸어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며, ‘원시사회의 붕괴’에 수록된 교시(2-16)는 1982년판과 1983년판의 ‘원시공동체사회의 붕괴’에 수록된 교시(2-4, 2-9)와 같은 것으로 이 교시는 1999년판과 2001년판에도 같은 소단원에 똑같이 수록되었다. “자연과 사회는 다 자기의 발전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매우 일반론적이면서도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인 듯하다. 한편, 1995년판의 김정일 말씀(2-17)은 1983년판의 2-12, 2-13 말씀을 종합하여, 주체사상의 중심 내용인 인간의 노동에 의한 창조성을 강조한 것이다.

1999년판과 2001년판에는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이 각각 1개씩만 수록되었다. 김일성 교시는 1983년판부터 ‘원시(공동체)사회의 붕괴’ 부분에 계속 같은 문장이 수록된 것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입니다.”라는 김정일 말씀(2-19, 2-21)은 1982년판(2-6)과 1983년판(2-10)의 김일성 교시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약간 수정하여 대체한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그 자리를

---

29 오경섭, 앞의 책, 32~33쪽.

계승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영향 아래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김정일의 말씀으로 더욱 강조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원시(공동체)사회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는 창조적 생산활동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1983년판에는 김일성 교시는 줄어들고 김정일 가르침이 새로 나타나면서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가 김정일 가르침에 크게 반영되었다. 1995년판부터는 교과서 분량이 줄어들면서 교시와 말씀 또한 줄어들었는데, 인간의 노동을 강조하거나 우리 민족이 슬기로운 민족이라는 김정일 말씀이 추가되었다.

### 3. ‘노예사회’ 단원의 교시와 말씀

고조선, 부여, 진국에 해당하는 ‘노예사회’ 단원도 노동을 통한 생산력 발전과 우수한 문화 발전이라는 창조의 역사와 지배층에 대한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구성·서술되었고, 교시와 말씀도 이 부분에 수록되었다.

1982년판에서는 노예제 국가의 성립, 발전, 붕괴, 문화 등 소단원에 6개의 김일성 교시가 수록되었다. 내용별로 계급투쟁(국가의 성격) 3개(3-1, 3-3, 3-4), 생산 활동 1개(3-2), 문화 2개(3-5, 3-6)로 나눌 수 있다. 문화의 경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여 동방문화를 꽃피우고 인류 과학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는 점<sup>30</sup>을 밝히는 교시이다.

1983년판에는 1982년판에 비해 김일성 교시는 6개로 같고, 김정일 가르침은 1개가 추가 수록되었다. 6개의 김일성 교시 가운데, ‘과거 정권은 반인민적·관료적’이라는 교시(3-1)를 대체하여 ‘국가가 독재 기능을 수행하

---

30 금성청년출판사 편, 앞의 책, 72쪽.

표5- '노예사회' 단원의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말씀

구분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말씀	
1982년판	김일성 교시	<p>3-1. 제1절 고대국가들의 성립(24쪽) 과거에는 인민을 억압하는 소수 통치배들이 인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로부터 강제로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반인민적이며 관료적인 정권이었습니다.</p> <p>3-2. 제2절 고대국가들의 발전 「경제의 발전」(26쪽) 모든 재부는 노동의 산물입니다.</p> <p>3-3. 제2절 고대국가들의 발전 「노예제도의 발전」(28쪽)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생겨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국가주권을 쥐었는가 못쥐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었습니다.</p> <p>3-4. 제3절 고대국가들의 붕괴 「고대국가들의 붕괴와 봉건제도의 발생」(30쪽) …… 탄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혁명이 일어납니다. 노예사회에서 봉건사회로 넘어갈 때에도 그랬고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갈 때도 그랬습니다.</p> <p>3-5. 제4절 고대조선의 문화 「과학과 기술」(33쪽) 우리 조상들은 고대로부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였으며 동방문화를 꽃피웠습니다.</p> <p>3-6. 제4절 고대조선의 문화 「문학과 예술」(35쪽) 우리의 문학예술은 오랜 역사적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p>
1983년판	김일성 교시	<p>3-7. 제1절 노예제도의 발생(33쪽) …… 국가는 독재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입니다.</p> <p>3-8. 제3절 고대국가들의 발전 1. 경제의 발전(36쪽) : 1982판 3-2와 같은 교시</p> <p>3-9. 제3절 고대국가들의 발전 2. 노예제도의 발전」(38쪽) : 1982판 3-3과 같은 교시</p> <p>3-10. 제4절 고대국가들의 붕괴 1. 고대국가들의 붕괴(41쪽) : 1982판 3-4와 같은 교시</p> <p>3-11. 제5절 고대조선의 문화 1. 과학과 기술」(44쪽) : 1982판 3-5와 같은 교시</p> <p>3-12. 제5절 고대조선의 문화 2. 문학과 예술(47쪽) : 1982판 3-6과 같은 교시</p>
1995년판	김정일 가르침	<p>3-13. 제2절 고대국가들의 발전 2. 노예제도의 발전(40쪽) 자본주의에 이르는 모든 착취사회의 법은 착취계급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착취계급은 그것을 통치수단으로 하여 국가적지배를 유지하여왔습니다.</p>
1995년판	김일성 교시	<p>3-14. 제2절 고대국가들의 발전 2. 생산의 발전(29쪽) 우리 조상들은 벌써 먼 옛날부터 쇠를 녹여 가마를 만들어 밥을 지어 먹었으며 화로도 만들고 그밖에 여러 가지 그릇도 만들어냈습니다.</p>

		3-15. 제4절 고대시기의 문화(36쪽) : 1982판 3-5, 1983판 3-11과 같은 교시
		3-16. 제4절 고대시기의 문화 3. 말과 글(40쪽) 우리 민족이 자기의 고유한 말과 글을 가지고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량이며 커다란 힘입니다.
	김정일 말씀	3-17. 제1절 고대국가들의 성립 1. 단군에 의한 고조선건국(20쪽) 고조선은 우리 민족이 자체로 세운 나라입니다.
		3-18. 제3절 고대국가들의 붕괴 1. 고조선의 종말 「노예제도의 위기」(32쪽) 인류역사발전과정을 보면 노예사회는 노예폭동에 의하여 멸망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1999년판	김일성 교시	3-19. 제3절 고대조선사람들의 일본땅에서의 진출(22쪽): 추가 우리 조상들은 일본문화의 개척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김정일 말씀	3-20. 제1절 고조선 1. 단군조선의 성립(13쪽) : 1995판 3-17과 같은 말씀
2001년판	김일성 교시	3-21. 제3절 고대조선사람들의 일본땅에서의 진출(23쪽) : 1999판 3-19와 같은 교시
	김정일 말씀	3-22. 제1절 고조선(14쪽) : 1995판 3-17, 1999판 3-20과 같은 말씀
		3-23. 제1절 고조선 3) 《범금8조》(17쪽) 〈범금8조〉는 한중도 못되는 노예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노예를 비롯한 절대다수의 피압박대중을 억누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는 권력기관'이라는 교시(3-7)가 수록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5개 교시는 수록된 위치와 문장이 1982년판과 같다. 김정일 가르침(3-13)은, 첫 번째 계급사회라고 하는 '노예제 국가' 부분에서 자본주의사회까지의 법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역할에 대한 북한학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1995년판에서는 김일성 교시가 6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고, 김정일 말씀은 1개에서 2개로 늘어났다. 동방문화에 대한 교시(3-5, 3-11)는 그대로 수록되었고, 쇠를 녹이는 기술(3-14)과 말과 글(3-16)에 대한 교시가 추가되었고, 붕괴 부분의 교시(3-4)는 김정일 말씀(3-18)으로 대체되었다. 쇠를 녹이는 기술에 대한 교시는 '우리 민족은 기원전 1000년대 전반기부터 철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3-2세기경에 질 좋은 강철제품을 만들어

이용하는 창조적 능력을 가진 민족으로서 인류의 과학과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sup>31</sup>는 내용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영향을 반영한 교시이다. 또한 ‘말과 글’에 대한 교시(3-16)에 이어서 ‘고조선 때 고유한 문자인 신지글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도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지글자’를 고조선 고유의 문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1995년판에 수록된 3개의 김일성 교시는 모두 ‘조선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김정일 말씀은 2개인데, 그 가운데 고조선 건국에 대한 교시(3-17)가 주목된다. 김정일 말씀에 이어 본문에서는 ‘기원전 2993년 평양에서 조선민족의 첫 국가 고조선이 세워졌고, 고조선을 세운 왕은 단군으로 기원전 3018년 산 좋고 물 맑은 평양에서 이름 높은 종족추장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서술하였다(20쪽).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기원전 3천년 경으로 보고, 단군을 고조선을 건국한 실존 인물로 이해하면서, 평양 중심의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서술은 1993년에 이루어진 ‘단군릉 발굴’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단군은 신화에서 역사로 자리바꿈하였고, 고조선은 단군조선(전조선)·후조선·만조선으로 구성되었다고 정리되었으며, 기자조선은 부정되었다. 단군조선의 건국연대도 기원전 3천년 이전으로 조정되었고, 후조선은 기원전 14세기에, 만조선은 기원전 2세기에 각각 성립되었으며, 부여·구려·진국 등의 고대국가들은 고조선의 후국으로 위치지워졌다. 고조선의 위치에 대해서는 재요령설이 폐지되고 이 과정에서 비파형동검문화의 발원지와 중심지도 모두 평양 일대로 수정되었다.<sup>32</sup> 고조선 역사의 유구함을 강조한 이러한 주장은 ‘조선민족제일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31 고영환, 『우리 민족제일주의론』(평양출판사, 1989), 187쪽.

32 권오영, 「단군릉 사건과 대동강문화론의 전개」, 『북한의 역사만들기』(푸른역사, 2003), 97~100쪽.

1995년판 교과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평양시 강동군에 있는 단군릉을 발굴·복원했으며, 단군릉은 동방의 강성대국 단군조선의 기상을 상징한다.'고 서술하여 '현재' 평양을 수도로 삼고 있는 북한 정권이 '강성대국' 고조선과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17의 김정일 말씀은 그러한 의도를 함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판에는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이 각각 1개씩 수록되었다. '고대 일본 문화 개척에 영향을 끼쳤다.'는 김일성 교시(3-19)는 새로 수록된 것이고, 김정일 말씀(3-20)은 1995년판과 같다. 1999년판의 교시와 말씀은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토대로 고대 한국문화의 선진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에 대한 문화적 영향을 강조한 것이다.

2001년판에는 김일성 교시 1개와 김정일 말씀 2개가 수록되었다. 1999년판과 수록 위치와 내용은 같으며, '범금8조' 부분에 김정일 말씀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고조선의 '범금8조'가 '노예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피압박 대중을 억누르기 위한 법'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가진 말씀이다. 1983년판에서 '착취사회의 법이 착취계급을 위해 복무하고 국가적 지배를 유지하는 통치수단이었다.'는 일반론적인 김정일의 가르침(3-13)을, 보다 구체적으로 '범금8조'에 대응하여 서술한 것이다.

노예사회 단원에서, 김일성 교시는 계급투쟁과 생산활동 및 문화 등 주제별로 고르게 수록되었다가 1995년판에서 반으로 줄어들면서 '조선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바뀌었으며, 1999년과 2001년판에서도 일본문화에 대한 영향을 언급한 교시가 수록되었다. 1983년부터 수록된 김정일 가르침은 법의 역사적 의미, 고조선, 계급투쟁 등에 대한 것이다. 김일성 교시에서 우리 말과 글을 강조하거나, 단군릉 발굴 성과에 기반하여 김정일이 평양에서 건국한 고조선을 언급한 것은 모두 1990년대의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 4. ‘삼국시기’ 단원의 교시와 말씀

‘삼국시기’는 ‘봉건사회의 성립’ 또는 ‘첫 봉건국가들’이라는 명칭의 단원이다. 고대사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교시와 말씀 또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표6- ‘삼국시기’ 단원의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말씀

구분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말씀
1963년판	김일성 교시	<p>4-1. 제3장 봉건 국가 3국의 성립과 발전(51쪽)            …… 또한 이 장을 학습함으로써 […] 튼튼한 정권 하에서 싸울 때 그 어떠한 침략자들도 능히 격파할 수 있으며 정의의 전쟁에 결기한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더욱 명백히 파악하게 된다.</p> <p>4-2. 제3절 수나라 및 당나라 침략자를 반대한 전쟁에서의 고구려 인민의 거대한 승리, [수나라 침략자를 반대한 전쟁에서의 고구려 인민의 거대한 승리](85쪽)            김 일성 동지는 강 감찬, 리 순신 장군 등과 함께 을지 문덕 장군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외국 략탈자들로부터 우리 조국을 용감하게 수호한 을지 문덕, 강 감찬, 리 순신 장군들과 같은 우리 선조들의 영예로운 업적과 용감성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이 신성한 투쟁에서 우리의 인민군 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을 영웅적 위훈에로 고무 격려할 것입니다.》(김 일성 선집 3권 1954판 30~31 페이지)</p>
1982년판	김일성 교시	<p>4-3. 제1절 봉건국가들의 성립(38쪽)            낡고 발전하지 않는것이 반드시 새것에 의하여 교체되는것은 사물발전의 법칙입니다.</p> <p>4-4. 제2절 고구려의 강성(41쪽)            지난날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하였던 시기는 고구려시대였습니다.</p> <p>4-5. 제3절 백제와 신라(46쪽)            우리 나라의 남쪽에 자리잡은 신라와 백제 사람들도 높은 위세로 외적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조국땅을 굳건히 지켰습니다.</p> <p>4-6. 제4절 수, 당 나라 침략자들을 쳐물리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수나라 침략자들을 섬멸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50쪽)            고구려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되고 무술을 배웠으며 용감성으로 단련되었기때문에 높은 민족적근지와 씩씩한 기상을 지닐 수 있었으며 아세아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수나라의 300만 대군의 침습을 물리치고 나라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었습니다.</p>



	<p>4-7. 제5절 1~7세기초의 문화 「과학과 기술」 〈기상 천문학〉(59쪽) 우리 선조들은 7세기전반기에 벌써 세계에서 이름있는 천문대인 첨성대를 건설하여 기상학과 천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p> <p>4-8. 제5절 1~7세기초의 문화 「과학과 기술」 〈아금기술〉(61쪽) 우리 나라에서는 먼 옛날부터 철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삼국시기에 와서는 철재로 생활도구를 만들어 광범히 리용하였고 금, 은, 동 세공술도 고도로 발전하였습니다.</p> <p>4-9. 제5절 1~7세기초의 문화 「문학과 예술」 〈음악과 무용〉(63쪽)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음악과 무용이 발전하였습니다. 선조들은 가야금, 거문고 등 매우 훌륭한 민족악기를 만들어 음악을 발전시켰고 룠동이 우아한 민족무용을 발전시켰습니다.</p> <p>4-10. 제5절 1~7세기초의 문화 「문학과 예술」 〈건축〉(64쪽) 삼국시기에는 건축술도 발전하였습니다.</p> <p>4-11. 제5절 1~7세기초의 문화 「문학과 예술」 〈미술〉(66쪽) 수천년이 지나도 그 색이 변하지 않는 고구려고분의 벽화들과 신라의 석굴암의 조각상들은 또한 우리 나라 고대미술의 높은 수준을 말하여주고있습니다.</p> <p>4-12. 제5절 1~7세기초의 문화 「세나라의 문화가 일본의 문화발전에 준 영향」(67쪽) 우리 나라의 발전된 문화와 야금술, 도자기술 등은 벌써 삼국시기부터 멀리 외국에까지 전파되어 명성을 떨쳤습니다. 당시 우리 나라의 장공인들, 건축가들, 화가들, 선비들은 일본에 건너가서 글과 기술을 보급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p> <p>4-13. 제5절 1~7세기초의 문화 「유교와 불교」(68쪽) 종교는 돈 있고 권세 있는놈들이 인민들을 착취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데 써먹는 아편이다.</p>
1983년판	<p>4-14. 제2절 봉건국가들의 성립(52쪽) : 1982판 4-3과 같은 교시</p> <p>4-15. 제3절 고구려의 강성 1. 상무의 기풍(57쪽) 고구려때 인민들은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도 즐겨하였고 늘 몸을 튼튼히 단련하였기 때문에 곤란을 이겨내는 강한 체질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p> <p>4-16. 제3절 고구려의 강성 2. 고구려의 강성(59쪽) : 1982판 4-4와 같은 교시</p> <p>4-17. 제4절 백제와 신라의 형편(64쪽) : 1982판 4-5와 같은 교시</p> <p>4-18. 제4절 수, 당 나라 침략자들을 쳐물리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1. 수나라 침략자들을 섬멸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69쪽) : 1982판 4-6과 같은 교시</p>

		<p>4-19. 제6절 세나라시기의 문화 1. 과학과 기술 「기상 천문학」(80쪽) : 1982판 4-7과 같은 교시</p> <p>4-20. 제6절 세나라시기의 문화 2. 문학과 예술 「음악과 무용」(85쪽)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음악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또 이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세나라시기에는 가야금, 젓대, 비파 같은 악기들이 나왔습니다.》</p> <p>4-21. 제6절 세나라시기의 문화 2. 문학과 예술 「건축」(86쪽) : 1982판 4-10과 같은 교시</p> <p>4-22. 제6절 세나라시기의 문화 2. 문학과 예술 「미술」(89쪽) : 1982판 4-11과 같은 교시</p> <p>4-23. 제6절 세나라시기의 문화 3. 유교와 불교(68쪽) : 1982판 4-13과 같은 교시</p> <p>4-24. 제7절 조선사람들의 일본에로의 진출과 일본의 문화발전에 준 영향(94쪽) 당시 우리 나라의 장공인들, 건축가들, 화가들, 선비들은 일본에 건너가서 글과 기술을 보급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 1982판 4-12를 일부 생략한 교시</p>
	김정일 가르침	<p>4-25. 제3절 고구려의 강성 3. 평양성건설(59쪽) 평양은 1,500여년의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p> <p>4-26. 제4절 수, 당 나라 침략자들을 쳐물리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2. 당나라 침략자들을 섬멸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안시성전투의 빛나는 승리(75쪽) 고구려의 군대와 인민들은 을지문덕장군의 지휘밑에 300만에 달하는 수나라침략 군을 격멸소탕하였으며 연개소문의 지휘밑에 당나라의 침략과 압력을 짓부셔버렸다.</p> <p>4-27. 제6절 세나라시기의 문화 2. 문학과 예술, 음악과 무용(85쪽)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음악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또 이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세나라시기에는 가야금, 젓대, 비파 같은 악기들이 나왔습니다.》</p>
1995년판	김일성 교시	<p>4-28. 제1절 봉건국가들의 성립 1. 봉건관계의 발전(44쪽) : 1982판 4-3, 1983판 4-14와 같은 교시</p> <p>4-29. 제2절 고구려의 강성 2. 상무의 기풍(57쪽) : 1983판 4-15와 같은 교시</p> <p>4-30. 제3절 후부여와 백제, 신라와 가야 2. 백제(62쪽) : 1982판 4-5, 1983판 4-17과 같은 교시</p> <p>4-31. 제4절 수, 당 나라 침략을 물리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1. 수나라 침략을 물리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67쪽)</p>

		<p>: 1982판 4-6, 1983판 4-18과 같은 교시</p> <p>4-32. 제5절 삼국시기의 문화 1. 과학과 기술 「천문학과 기상학」(76쪽) : 1982판 4-7, 1983판 4-19와 같은 교시</p> <p>4-33. 제5절 삼국시기의 문화 1. 과학과 기술 「건축기술」(79쪽) : 1982판 4-10, 1983판 4-21과 같은 교시</p> <p>4-34. 제5절 삼국시기의 문화 2. 문학과 예술 「음악과 무용」(82쪽) : 1983판 4-20과 같은 교시</p> <p>4-35. 제5절 삼국시기의 문화 2. 문학과 예술 「미술」(83쪽) : 1982판 4-11, 1983판 4-22와 같은 교시</p> <p>4-36. 제5절 삼국시기의 문화 3. 불교와 유교(85쪽) 옛날부터 사람들은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잘사는 그러한 사회를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옛날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착취와 압박, 투기와 질투, 가난과 슬픔만 있는줄 알았지 그러한 사회악을 없애고 이 땅위에 모두 다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죽어서 &lt;천당&gt;이나 &lt;극락 세계&gt;에 가야 락을 누릴수 있다고 하는 예수교와 불교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것입니다.</p>
	김정일 말씀	<p>4-37. 제2절 고구려의 강성(52쪽): 1982판 4-4, 1983판 4-16 교시 대체 고구려는 지난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p> <p>4-38. 제2절 고구려의 강성 4. 세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투쟁(57쪽) 고구려는 오래전부터 삼국의 통일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으며 삼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주변나라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과 완전히 결합하여 힘있게 밀고나갔다.</p> <p>4-39. 제4절 2. 당나라 침략을 물리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나라안팎의 정세」(72쪽) : 1983판 4-26과 같은 말씀</p> <p>4-40. 제5절 삼국시기의 문화 4. 생활풍습(87쪽)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레의법절이 밝은 인민으로 불리워왔습니다.</p>
1999년판	김일성 교시	<p>4-41. 제1절 강성대국 고구려(24쪽) : 1982판 4-4, 1983판 4-16과 같은 교시 지난날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하였던 시기는 고구려시대였습니다.</p> <p>4-42. 1절 강성대국 고구려 4. 고구려-수, 당 전쟁 1) 고구려-수전쟁(30쪽) : 1982판 4-6, 1983판 4-18, 1995판 4-31과 같은 교시</p> <p>4-43. 제1절 강성대국 고구려 5. 고구려의 문화(36쪽)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로 빛나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적 창조와 발명으로써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p> <p>4-44. 1절 강성대국 고구려 5. 고구려의 문화 6) 왕산악(40쪽) 우리 선조들은 좋은 곡들도 많이 만들었으며 그것을 훌륭히 연구하였습니다.</p>

		<p>4-45. 3절 신라 2. 동쪽의 나라들에 대한 배신과 신라-당나라의 《비밀협약》(46쪽) 신라통치배들은 경도를 넓히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고 기회를 노리고있던 당나라의 침략세력을 끌어들이는 죄악적인 행동을 감행하였다.</p> <p>4-46. 3절 신라 3. 신라의 문화 1) 첨성대(49쪽) : 1982판 4-7, 1983판 4-19, 1995판 4-32과 같은 교시</p>
	김정일 말씀	<p>4-47. 제1절 강성대국 고구려 3. 세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투쟁(27쪽) : 1995판 4-38과 같은 말씀</p> <p>4-48. 제1절 강성대국 고구려 3. 세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투쟁 2) 평양천도(29쪽) 고구려는 일찌기 평양에 삼국통일을 위한 거점을 꾸리었고 427년에 이곳으로 수도를 옮겨왔습니다. 평양천도는 삼국시기 우리 나라 역사발전에서 중요한 사변으로 되었습니다.</p> <p>4-49. 1절 강성대국 고구려 4. 고구려-수, 당 전쟁 2) 고구려-당전쟁(30쪽) 고구려의 인민들은 70년동안이나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규모적이고 집요한 침략을 격퇴하고 나라의 존엄과 독립을 지켜냈다.</p> <p>4-50. 1절 강성대국 고구려 4. 고구려-수, 당 전쟁 3) 고구려의 멸망(35쪽) 고구려말기의 역사는 나라의 통수체계와 방위체계가 마비되고 국내의 단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무리 강대한 국력을 가진 나라라 하더라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며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p> <p>4-51. 2절 백제 1. 동명왕의 아들 온조와 백제의 성립(41쪽) 온조이야기는 백제도 고구려에서 갈라져나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는 것을 말해줍니다.</p>
2001년판	김일성 교시	<p>4-52. 제1절 강성대국 고구려(25쪽) : 1999판 4-41과 같은 교시</p> <p>4-53. 제1절 강성대국 고구려 4. 고구려-수, 당 전쟁 1) 고구려-수전쟁(31쪽) : 1999판 4-42과 같은 교시</p> <p>4-54. 제1절 강성대국 고구려 5. 고구려의 문화(38쪽) : 1999판 4-43과 같은 교시</p> <p>4-55. 제1절 강성대국 고구려 5. 고구려의 문화 6) 왕산악(41쪽) : 1999판 4-44와 같은 교시</p> <p>4-56. 제3절 신라 3. 신라의 문화(50쪽) : 1999판 4-46과 같은 교시</p> <p>4-57. 제4절 일본땅에 퍼진 세나라의 문화(55쪽) …… 우리 나라의 장공인들, 건축가들, 화가들, 선비들은 일본에 건너 가서 글과 기술을 보급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 1982판 4-12, 1983판 4-24와 같은 교시. 재수록</p>
	김정일 말씀	<p>4-58. 제1절 강성대국 고구려 3. 세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투쟁(29쪽) : 1999판 4-47과 같은 말씀</p>

	4-59. 제1절 강성대국 고구려 3. 세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투쟁 2) 평양천도(30쪽) : 1999판 4-48과 같은 말씀
	4-60. 제1절 강성대국 고구려 4. 고구려·수, 당 전쟁 2) 고구려·당전쟁(35쪽) : 1999판 4-49와 같은 말씀
	4-61. 제1절 강성대국 고구려 4. 고구려·수, 당 전쟁 3) 고구려의 종말(37쪽) : 1999판 4-50과 같은 말씀
	4-62. 제2절 백제 1. 동명왕의 아들 온조와 백제의 성립(43쪽) : 1999판 4-51과 같은 말씀
	4-63. 제3절 신라 2. 동쪽의 나라들에 대한 배신과 신라·당나라의 《비밀협약》(48쪽) : 1999판 4-45와 같은 말씀

1963년판에 수록된 2개의 김일성 교시는 모두 반침략투쟁에 대한 내용이다. 문장 중간에 서술되면서 인용되어 있는데, 침략자를 물리치는데 ‘튼튼한 정권’이나 ‘강감찬, 이순신, 을지문덕’ 같은 장군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전쟁을 수행하는 정권 및 지휘관의 중요성을 언급한 내용으로, ‘인민대중의 반침략투쟁’을 보다 더 강조한 이후의 교시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보인다.

1982년판에서는 역사발전 법칙 1개, 반침략투쟁 3개, 문화 7개 등 11개의 교시가 수록되었다. 반침략투쟁 교시는, 고구려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4-4), 신라와 백제도 외적을 막고 영토를 지켰다(4-5), 고구려와 수·당나라의 전쟁(4-6) 등이다. 고구려 관련 교시가 2개이고 신라와 백제는 합해서 1개이므로 고구려를 강조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 보아도 4-4 교시 다음에는 고구려의 대외 전쟁과 영토확장이 서술되어 있어서 4-6 교시와 함께 볼 때 고구려는 반침략투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 관련 교시는 ‘과학기술’에서 기상천문학(4-7)과 야금기술(4-8) 등 2개, ‘문학과 예술’에서 음악과 무용(4-9), 건축(4-10), 미술(4-11) 등 3개, 일본문화에 대한 영향(4-12), 종교에 대한 비판(4-13) 등 모두 7개이다. 모두 각 소단원의 첫 부분에 교시가 수록되어 각 단원의 본문에 서술된

구체적인 사례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교시의 내용은 해당 분야의 기술과 예술이 우수하다는 서술이다. 전체 김일성 교시 가운데 문화부분에 수록된 교시가 2배 가까이 많다는 점에서, 삼국 문화의 우수성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교를 비판한 교시(4-13)는, 이기주의 사상을 비판한 교시(2-6), '과거 정권은 반인민적·관료적이었다.'는 교시(3-1)와 함께 비판적인 내용의 교시이다. 특히 문화 관련 교시는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인데 반해, 유일하게 '종교는 아편이며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데 써먹는다.'라고 비판하는 교시이다. 교시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불교나 유교의 교리가 지배층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인민들의 투쟁을 억누르는 논리라는 비판과 함께 이들 종교가 인도나 중국에서 들어온 반동 논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1983년판에서는 11개의 김일성 교시와 3개의 김정일 가르침이 수록되었다. 11개의 김일성 교시 가운데 8개(4-14, 4-16, 4-17, 4-18, 4-19, 4-21, 4-22, 4-23)는 1982년판 교시와 같고, 1개는 일부를 생략하고 실었다(4-24). 야금기술 교시(4-8)는 삭제되었고, 음악·무용 교시(4-9)는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으로 나뉘어 2개가 수록되었으며, 새로이 고구려의 상무 기풍에 대한 교시(4-15)를 추가하였다.

'음악과 무용' 부분에서는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이 연달아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4-20[4-27]), 이것은 전체 교과서를 통틀어 유일한 사례인 듯하다. 1982년판의 김일성 교시(4-9)는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음악과 무용을 발전시켰다.'는 일반론적인 내용인데, 1983년판에서는 '우리 인민이 음악을 매우 사랑하고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는 일반론적 김일성 교시와, '삼국시기에 가야금, 젓대, 비파 같은 악기가 나왔다.'고 하여 악기만 언급한 김정일 가르침으로 나누어 연달아 수록한 것이다. 김정일 가르침은 악기라는 좀 더 세분된 소재만을 언급하여 김일성 교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고구려의 상무 기풍에 대한 교시는 고구려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1983년판의 김정일 가르침은 음악(4-27), 평양 건설(4-25), 당 태종 침략에 대한 투쟁(4-26) 등 3개이다. 평양 건설 가르침은 북한의 수도 평양이 고구려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도시임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유구한 역사성과 평양의 중요성을 드러내려는 서술이다. 당 태종 침략에 대한 투쟁을 언급한 가르침은, 수나라를 몰리친 반침략투쟁에 대한 김일성 교시(4-6, 4-18)와 달리 반외세투쟁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을지문덕과 연개소문을 좀 더 부각시켰다. '수령'인 김일성의 '영도력'을 강조하려는 김정일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5년판에는 9개의 김일성 교시와 4개의 김정일 말씀이 수록되었다. 1983년판에서 강성한 고구려를 언급한 교시(4-16)가 김정일 말씀(4-37)으로 대체되었고, '일본 문화에 대한 영향' 교시(4-24)는 생략되어 2개가 줄었다. 종교를 비판한 교시(4-13, 4-23)는 수정된 교시로 대체되었는데(4-36), 불교와 함께 기독교의 교리를 추가하여 비판하였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곧 미국에 대한 비판을 뜻한다. 뜬금없이 삼국시기 불교를 언급하면서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김일성 교시를 수록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의 안보 위기와 관련이 있다. 북한 핵사찰을 둘러싸고 진행된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생긴 안보 위기가 북한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상황이<sup>34</sup> 반영되어, 내세에 극락세계에 가서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불교의 교리를 비판하면서

---

33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김정일이 한 말로 바뀐다. 김정일은 1962년 9월 21일 “고구려사람들속에서는 무술을 숭상하는 생활기풍이 강하게 지배하였습니다. 고구려사람들은 무술을 배우는 것을 의무로 여기고 어려서부터 무술을 배우고 익혔습니다.”고 말했다고 하며, 이를 통해 ‘고구려를 강대한 나라로 만드는데 적극 이바지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주성철·림오성·김승일, 「고구려사람들의 상무기풍」, 『장군님과 력사학』(사회과학출판사, 2014), 216~219쪽).

34 조은성, 앞의 논문, 100~103쪽.

죽은 뒤 천당에 가서 축복을 누린다는 예수교(기독교)를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기독교로 상징되는 미국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sup>35</sup>

1995년판의 김정일 말씀은 4개이다. 4-39는 4-26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고, 나머지는 새로 추가된 것이다. '고구려의 강성' 부분에 수록된 말씀(4-37)은 김일성의 교시(4-4, 4-10)를 약간 수정한 것인데, 김일성 교시가 김정일 말씀으로 바뀌었다. 김일성 교시가 곧 김정일 말씀과 같다는 것이므로, 김정일이 김일성의 위상을 대체했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의 삼국통일 의지'를 강조한 김정일 말씀(4-38)에 조응하여 본문에서는 "옛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강한 나라를 세우고 세나라의 통일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서술하였다(59쪽). 북한에서 고구려가 '삼국통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면서도 이것을 굳이 강조하는 것은 고구려를 삼국관계의 주도자로 인식하고 이를 부각시키려는 데에서 말미암은 측면이 크다.<sup>36</sup>

'조선사람이 예로부터 예의범절이 밝다.'는 김정일 말씀(4-40)도 새로 추가된 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미풍양속'을 계급적 관점에서 '인민적이고 진보적인 풍속'으로 규정하고 그 계승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는 '미풍양속'을 주제로 한 글들이 발표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까지 생활풍속사 관련 단행본들이 잇달아 출판되었다.<sup>37</sup> 김정일은 일찍이

---

35 김일성은 "우리가 지향하는 공산주의는 과학적공산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이나 <극락세계>에 갈수 있다는 것을 설교하는 종교의 교리를 믿는 것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라고 교시하여(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사회과학출판사, 1975), 145쪽), 현실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과학적 공산주의와, 죽어서 천당이나 극락세계에 간다는 종교(기독교와 불교)를 대비시켰다.

36 전호태, 「삼국에 대한 인식」, 『북한의 한국사 인식』 I, 안병우·도진순 편(한길사, 1990), 123~124쪽.

37 박현순, 「북한의 생활풍속사 연구」, 『북한의 역사만들기』(푸른역사, 2003), 203~205쪽.



1963년에 “조선사람은 예로부터 권력이나 재물보다도 의리와 도덕을 더 귀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화목하게 사는 아름다운 풍습을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sup>38</sup> 김정일이 1963년에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도 1980년대 이래 북한의 생활풍속사 연구 성과를 토대로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김정일 말씀으로 표현한 것인 듯하다.

1999년판에는 6개의 김일성 교시와 5개의 김정일 말씀이 수록되었다. 6개의 김일성 교시 가운데 4개는 ‘강성대국 고구려’에, 2개는 ‘신라’에 각각 수록되었는데, 고구려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대로 수록된 4-41, 4-42와 4-46 외에 새로 3개의 교시가 고구려와 신라에 추가되었는데, 그 내용이 상반된다. ‘찬란한 문화에 빛나는 우리 민족이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교시(4-43) 다음에 고구려의 우수한 문화유적을 서술하고 있고, ‘우리 선조가 좋은 곡들을 만들고 훌륭히 연구했다.’는 교시(4-44) 다음에 고구려 왕산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과 함께 고구려에 대해 ‘강성대국 고구려’, ‘고구려의 강성함’ 등으로 호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1990년대 전반 이후 ‘고난의 행군’을 거친 뒤 1999년 김정일이 이끄는 21세기 국가전략으로 제기된 ‘강성대국론’<sup>39</sup>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반면, 신라에 대해 추가된 교시는, ‘영토 확장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당나라 침략세력을 끌어들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4-45). 7세기 중엽 당나라군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를 비판하는 북한학계의 견해가 그대로 투영된 교시이다.

1999년판의 김정일 말씀은 5개인데, 4개가 고구려, 1개가 백제에 대한 것이다. 4-47은 4-38과 같은 말씀으로 ‘고구려의 삼국통일 정책’에 대한 것이고, 평양천도의 의미를 강조한 4-48은 4-47 말씀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38 주성철·림호성·김승일, 「진보적인 것과 뒤떨어진 것」, 앞의 책, 221쪽.

39 조은성, 앞의 논문, 97~100쪽.

‘고구려·수, 당 전쟁’에 수록된 2개의 말씀은 새로 추가된 것인데, ‘고구려가 70년간 수·당나라의 침략을 격퇴했다.’고 칭송한 말씀(4-49)과 고구려 멸망 원인을 내부 분열 때문이라고 지적한 말씀(4-50)이다. 김정일은 “고구려가 무너진 것은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집권층안에서 일어난 추악한 권력싸움과 연개소문의 아들인 연남생의 투항변절때문에 자기의 강대한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기때문”이라고 했다고 한다.<sup>40</sup> 고구려 멸망의 원인을 내부 분열 때문이라고 언급한 김정일 말씀은, 1990년대 초 북한 정권의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김일성·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내부 단결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백제의 건국자 온조가 고구려 후손이라는 김정일 말씀(4-51)은 고구려가 백제보다 우위에 있다는 지적으로 고구려를 강조한 것이다. 결국 1999년판의 김정일 말씀 5개는 모두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판에는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이 각각 6개씩 수록되었다. 1999년판에서 신라를 비판한 김일성 교시(4-45)가 김정일 말씀으로 바뀌어 똑같이 수록되었고(4-63), 새로 추가된 ‘일본 문화에 대한 영향’ 교시(4-57)는 1982년판(4-12)·1983년판(4-24)과 같다. 김정일 말씀은 1999년판의 5개 말씀과, 신라를 비판한 김일성 교시(4-45)를 바꾸어 그대로 수록했다. 이것 또한 김정일이 김일성의 위상을 대체한 것을 보여준다.

삼국시기 단원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은, 1982년판·1983년판에서는 삼국 문화에 대한 주제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고구려의 강성함과 반침략투쟁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1995년판부터 삼국 문화에 대한 주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고구려의 강성함과 반침략투쟁에 대한 교시나 말씀이 늘어났고, 특히 김정일 말씀 가운데 ‘강성대국 고구려’에 대해 언급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40 주성철·림호성·김승일, 「고구려멸망의 원인」, 앞의 책, 7~73쪽.

## 5. ‘발해와 신라’ 단원의 교시와 가르침·말씀

‘발해와 신라’ 단원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 및 말씀은 다음과 같다.

표7- ‘발해와 신라’ 단원의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말씀

구분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말씀
1963년판	김일성 교시 5-1. 제4절 신라 및 발해의 문화 「조형예술의 발전」(147쪽) 해방 후 우리 당과 정부는 《우리는 자기의 고귀한 과학, 문화의 유산을 윽게 섭취하며 그를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서만이 타국의 선진 과학, 문화들을 급히 또는 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김 일성 선집 4권 1954판 3321 페이지)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따라 민족 문화 유산을 윽게 계승 발전시켜 선조들이 남겨 놓은 아름답고 진보적인 모든 것이 우리 시대에 활짝 꽃피게 하고 있다.
1982년판	김일성 교시 5-2. 제1절 당나라강점군을 몰아내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70쪽) 남에게 의존해서 독립을 하며 남의 덕에 잘 살아보겠다는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며 또한 윽지 못한 생각입니다. 5-3. 제2절 발해 「발해의 성립」(72쪽) …… 우리 인민은 외래침략자들과는 굴함없이 싸워 민족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애국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5-4. 제4절 9세기농민전쟁과 후삼국 「9세기 농민전쟁」(84쪽)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인민들의 반항이 있는 법입니다. 5-5. 제5절 7세기말~10세기초의 문화 「과학과 기술」(92쪽) …… 천수백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변치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은 당시의 건축술의 발전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있습니다. 5-6. 제5절 7세기말~10세기초의 문화 「과학과 기술」(94쪽) 옛날의 이름난 화가 솔거는 벽에 소나무를 어찌나 잘 그려놓았던지 날아가던 새들이 그것이 진짜 소나무인줄로 알고 거기에 앉으려다가 벽에 부딪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5-7. 제5절 7세기말~10세기초의 문화 「문학과 음악, 무용」(97쪽)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음악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또 이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있습니다.
1994년판	김일성 교시 5-8. 제1절 당나라침략자들을 물리친 세나라 인민들의 투쟁 「신라와 당나라연합군의 백제, 고구려 침공」(2쪽) 만일 삼국시기에 고구려, 신라, 백제 세 나라가 단합하여 외적을 물리쳤더라면 우리 조국은 더욱 발전하였을것입니다.

		5-9. 제2절 《해동성국》 발해 「발해의 성립」(7쪽) : 1982판 5-3과 같은 교시
		5-10. 제3절 신라사람들의 해상활동(13쪽)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바다를 개척하고 바다우에서 용감히 싸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5-11. 제4절 9세기 농민전쟁 「9세기농민항쟁」(18쪽) : 1982판 5-4와 같은 교시
		5-12. 제5절 발해와 후기신라의 문화 「다보탑과 석가탑」(28쪽) : 1982판 5-5와 같은 교시
		5-13. 제5절 발해와 후기신라의 문화 「봉덕사종과 솔거의 그림」(30쪽) : 1982판 5-6과 같은 교시
	김정일 가르침	5-14. 제1절 당나라침략자들을 몰리친 세나라 인민들의 투쟁 「당나라침략세력을 몰아낸 세나라인민들의 투쟁」(5쪽) 신라에 대한 당나라의 침략책동이 날로 로골화되자 신라인민들까지 당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섰으며 당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인민들의 투쟁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5-15. 제2절 《해동성국》 발해 「발해의 룡성」(9쪽)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7세기말부터 10세기초에 이르는 시기에 우리나라역사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1999년판	김일성 교시	5-16. 2절 후기신라 2. 청해진과 장보고(61쪽) : 1994판 5-10과 같은 교시
		5-17. 3절 9세기농민전쟁과 《후삼국》 1. 붉은바지농민폭동(66쪽) : 1982판 5-4, 1994판 5-11과 같은 교시
	김정일 말씀	5-18. 발해와 후기신라 제1절 발해(56쪽) : 1994판 5-15와 같은 교시 5-19. 제2절 후기신라 3. 후기신라의 문화 5) 솔거의 그림(65쪽) 화가 솔거가 황룡사벽에 소나무를 어찌나 생동하게 그려놓았던지 날아가던 새들이 그것이 진짜 소나무인줄로 알고 앉으려다가 벽에 부딪쳐 떨어지곤하였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1982판 5-6, 1994판 5-13의 김일성 교시를 약간 수정
2001년판	김일성 교시	5-20. 제2절 후기신라 2. 청해진과 장보고(63쪽) : 1994판 5-10, 1999판 5-16과 같은 교시
		5-21. 제3절 9세기 농민전쟁과 《후삼국》 1. 붉은바지농민폭동(68쪽) : 1982판 5-4, 1994판 5-11, 1999판 5-17과 같은 교시
	김정일 말씀	5-22. 제1절 발해(58쪽) : 1994판 5-15, 1999판 5-18과 같은 말씀 5-23. 제2절 후기신라 3. 후기신라의 문화 5) 솔거의 그림(67쪽) : 1999판 5-19와 같은 말씀

1963년판의 김일성 교시(5-1)는 8~9세기 신라와 발해의 문화 전체를 일괄하여 서술한 뒤에 수록한 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 시켜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내용이다.

1982년판의 김일성 교시는 6개인데, 인민대중의 투쟁과 창조적 활동(문화)에 대한 교시가 각각 3개씩 나뉘어져 수록되었다. 반침략투쟁 2개(5-2, 5-3), 계급투쟁 1개(5-4), 문화 3개(5-5, 5-6, 5-7)이다. 5-2는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을 비판한 교시이고, 5-3은 이것과 대비되는 내용으로 고구려 유민이 당나라군을 몰아내고 발해를 건국한 것을 지적한 교시이다. 신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교시를 수록했고, 발해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교시를 수록한 점에서 대비된다. 5-4는 봉건통치자들에게 대한 계급투쟁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문화에 대한 교시는 불국사(5-5), 술거(5-6), 음악(5-7)에 대한 것으로, 건축과 조각, 미술, 음악 등의 주제로 배분되어 있는데, 모두 우수하다는 칭송을 담고 있다. 반침략투쟁 측면에서는 신라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신라의 문화에 대해서는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1994년판에서는 6개의 김일성 교시와 2개의 김정일 가르침이 수록되었다. 김일성 교시는 반침략투쟁 2개, 계급투쟁 1개, 창조적 노동(해상활동) 1개, 문화 2개이다. 1982년판의 5-3~5-6 등 4개 교시는 그대로 수록되었고, 신라를 비판한 교시(5-2)는 '삼국이 단합하여 외적을 물리쳤다면 우리 조국은 더 발전했을 것이다.'라는 문구로 순화되었다(5-8). 음악 교시(5-7)는 삭제되었고, 신라인들의 해상활동을 칭송하는 교시(5-10)가 추가되었다. '신라 인민들의 꾸준한 창조적 노동에 의해 경제와 문화가 발전했다.'고 하면서 이어서 해상활동을 칭송하는 김일성 교시를 수록하고, 신라 상인과 장보고 등의 활약을 서술하였다(13~15쪽).

2개의 김정일의 가르침은 반침략투쟁 1개, 발해 1개이다. 신라가 당나라

와 전쟁할 때 백제와 고구려 유민이 합세한 것(5-14),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7세기 말-10세기 초에 크게 번성했다.'는 것이다(5-15). 5-14의 김정일 가르침에 이어 '세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서 앞장선 것은 고구려 인민들'이라고 함으로써 고구려를 강조하였고, 발해의 융성을 지적하면서도 발해도 고구려의 계승자라고 언급하였다. 결국 김정일의 가르침은 모두 고구려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4년판의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은 발해와 신라의 국가별, 반침략투쟁에서 문화까지의 주제별로 비교적 고르게 수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9년판과 2001년판에는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이 각각 2개씩 똑같은 내용으로 수록되었다. 김일성 교시는 신라의 해상활동(5-16, 5-20)과 신라 말 농민항쟁(5-17, 5-21)이고, 김정일 말씀은 발해의 융성(5-18, 5-21)과 술거의 그림(5-19, 5-23)이다. 김일성 교시는 생산활동 1개, 계급투쟁 1개이며, 김정일 말씀은 발해 1개, 문화 1개이다. 발해의 건국은 반침략투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반침략·계급투쟁 및 창조적 생산활동·문화 등의 주제별로 1개씩 나눠서 수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술거의 그림에 대한 김정일 말씀은 김일성의 교시(5-6, 5-13)를 약간 수정하여 그대로 실었는데, 이것 또한 김정일이 김일성을 대체하는 위상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발해와 신라'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은 백제·고구려의 멸망부터 발해의 건국에 이르기까지의 반침략투쟁과, 8~10세기 초 신라 문화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신라인의 해상활동과 발해의 융성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1994년판부터 발해의 융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김정일 말씀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발해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IV. 맺음말

---

이 논문에서는 『조선력사』 교과서의 ‘머리말~발해와 신라’ 부분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을 단원별로 정리하고 비교·분석하였다. 북한 고등학교 『조선력사』 교과서의 고대사 부분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말씀은 ‘수령체제’가 확립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김일성 교시는 김정일 가르침·말씀보다 2배 더 많으며, ‘수령’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김정일 가르침·말씀은 김일성 교시를 보완하는 형태로 수록되었으며, 내용적으로는 주체사상, 단군릉 등 정계와 학계의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였다. 김일성에 대한 호칭은 ‘동지’에서 ‘위대한(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으로 바뀌었고, 김정일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으로 바뀌었다. 김일성의 말은 일관되게 ‘교시’로 표기되었으며, 김정일의 말은 ‘가르침’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었지만 ‘교시’로 표기되지는 않았다.

머리말에서는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선인민의 슬기로움’을 찬양하는 김일성 교시만이 수록되었다. 1983년판까지는 ‘조선혁명을 잘하기 위해 조선력사를 알아야한다.’는 필요성을 지적하였지만, 1995년에 ‘조선인민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이라는 교시로 대체되었고, 2001년에는 ‘조선력사 학습이 중요하다.’는 교시가 수록되었다.

원시(공동체)사회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는 창조적 생산활동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1983년판에는 김일성 교시는 줄어들고 김정일 가르침이 새로 나타나면서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가 김정일 가르침에 크게 반영되었다. 1995년판부터는 교과서 분량이 줄어들면서 교시와 말씀 또한

줄어드는데, 인간의 노동을 강조하거나 우리 민족이 슬기로운 민족이라는 김정일 말씀이 추가되었다.

노예사회 단원에서 김일성 교시는 계급투쟁과 생산활동 및 문화 등 주제별로 고르게 수록되었다가 1995년판에서 '조선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바뀌었으며, 1999년과 2001년판에서도 일본문화에 대한 영향을 언급한 교시가 수록되었다. 1983년부터 수록된 김정일 가르침은 법의 역사적 의미, 고조선, 계급투쟁 등에 대한 것이다. 김일성 교시에서 우리 말과 글을 강조하거나, 단군릉 발굴 성과에 기반하여 김정일이 평양에서 건국한 고조선을 언급한 것은 모두 1990년대의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삼국시기 단원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은, 1982년판·1983년판에서는 삼국 문화에 대한 주제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고구려의 강성함과 반침략투쟁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1995년판부터 삼국 문화에 대한 주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고구려의 강성함과 반침략투쟁에 대한 교시나 말씀이 늘어났고, 특히 김정일 말씀 가운데 '강성대국 고구려'에 대해 언급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발해와 신라'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은 백제·고구려의 멸망부터 발해의 건국에 이르기까지의 반침략투쟁과, 8~10세기 초 신라 문화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신라인의 해상활동과 발해의 융성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1994년판부터 발해의 융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김정일 말씀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발해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은, 반침략투쟁과 계급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물질적 부를 생산하고 문화를 발전시켜온 창조의 역사를 학습하는 것이 역사학습이라는 '주체의 학습론'



에 충실한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의 국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강성대국론’을 반영한 교시와 말씀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조선력사』(상). 학우서방, 1963.
- 김병룡·리태영,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4.
- 리인형,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 오영철,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1.
- 오영철·한영찬,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9.
- 홍성찬·신예순·강백영,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2.
- 홍성찬,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3.

### 2. 단행본

- 고영환, 『우리 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의 역사학』 (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 금성청년출판사 편, 『주체의 학습론』.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2; 서울: 미래사, 1989[재출판].
- 김석형·박시형, 『조선력사』. 평양: 교육성, 1953; 동경: 학우서방, 1954[번각].
- 김일성, 『김일성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1(원시편)~15(근대편3).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1980.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고고학연구소, 『조선전사』 1(원시편)~5(중세편(발해 및 후기신라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주체사상 총서 2. 서울: 백산서당, 1989.
-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 인식』 I. 서울: 한길사, 1990.
- 오경섭, 『주체사상의 구조와 정치적 기능의 변화』. 성남: 세종연구소, 2012.
- 이종석, 『북한의 역사』 2(주체사상과 유일체제 1960~1994). 서울: 역사비평사, 2011.

정영순·김도형·정경희·권희영, 『북한의 역사교육』.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주성철·림오성·김승일, 『장군님과 력사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4.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만들기』. 서울: 푸른역사, 2003.

### 3. 논문

권오영, 「단군릉 사건과 대동강문화론의 전개」. 『북한의 역사만들기』, 서울: 푸른역사, 2003, 87~109쪽.

김복영, 「북한의 「조선력사」 교과서에 나타난 미국관: 한국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비교를 중심으로」. 『社會科教育』 26, 1993, 116~125쪽.

김석형, 「해방 후 조선 력사학의 발전」. 『력사과학』 1962-2, 1962, 1~12쪽.

김일성,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김일성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325~354쪽.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543(1987년 7호), 근로자사, 3~19쪽.

\_\_\_\_\_,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8~81쪽.

박현순, 「북한의 생활풍속사 연구」. 『북한의 역사만들기』, 서울: 푸른역사, 2003, 183~208쪽.

徐載鎮, 「북한의 민족주의: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을 중심으로」. 『統一研究論叢』 2-1, 민족통일연구원, 1993, 71~96쪽.

염홍철, 「최근 10년간(76.7~86.6)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1-2, 1987, 291~312쪽.

윤종진, 「북한 고등중학교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정치사상교양' 내용 연구」. 『국민윤리연구』 47, 2001, 101~120쪽.

이찬희, 「북한의 역사교육 연구: 「조선력사」 신·구 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_\_\_\_\_, 「북한 중학교 『조선력사』 교과서 내용 분석」. 『北韓研究學會報』 8-1, 2004, 195~219쪽.

임채완, 「北韓의 民族主義 理論과 그 變化推移」. 『정신문화연구』 17-2(통권 55), 1994, 37~52쪽.

- 전호태, 「삼국에 대한 인식」. 『북한의 한국사 인식』 I, 안병우·도진순 편, 서울: 한길사, 1990, 105~147쪽.
- 조은성, 「김일성과 김정일 '말씀'의 사회통합적 기능: 1990~2000」.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지수걸, 「북한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체계와 내용」. 『북한의 역사학』 (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145~197쪽.
- 홍지선, 「북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연구: 『국어문학』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8, 2012, 433~466쪽.

## 국문초록

북한 고등학교 『조선력사』 교과서의 '머리말~발해와 신라' 부분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 및 말씀은 '수령체제'가 확립된 1980년대 교과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김일성 교시가 김정일 말씀보다 2배 더 많으며, '수령'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김정일 말씀은 김일성 교시를 보완·대체하는 내용이며, 주체사상이나 단군릉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였다.

머리말에서는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선인민의 슬기로움'을 찬양하는 김일성 교시만이 수록되었다. 원시사회의 김일성 교시는 창조적 생산 활동이 중심이었다가 1983년판부터 줄어들었고,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가 반영된 김정일 말씀이 추가되었다. 노예사회에서의 김일성 교시는 계급투쟁과 생산 활동 및 문화 등이 고르게 수록되었다가 1995년판에서 '조선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1983년부터 수록된 김정일 가르침은 특히 고조선을 자주 언급했다. 삼국시기에서는 삼국 문화와 고구려를 강조했고, 1995년판부터 김정일 말씀에서 '강성대국 고구려'를 더욱 부각했다. '발해와 신라'에서는 발해의 반침략투쟁과 융성 및 신라의 문화를 강조했다.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은, 역사학습이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창조의 역사를 학습하는 것이라는 '주체의 학습론'에 충실한 것이다. 1990년대부터 국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강성대국론'을 반영한 교시와 말씀이 많이 수록되었다.

투고일 2022. 3. 25.

심사일 2022. 5. 3.

계재 확정일 2022. 5. 3.

주제어(keyword) 『조선력사』(『Joseon History』), 김일성 교시(Kim Il-Sung's Kyosi), 김정일 말씀(Kim Jong-Il's Malsseum)

## Abstract

### A Study on Kim Il-Sung's Kyosi and Kim Jong-Il's Malsseum in the Parts from Foreword to Balhae and Silla of 『Chosun History』(High School Textbook of North Korea)

Park, Chan-heung

Kim Il-sung's Kyosi(the teachings of Kim Il-sung) and Kim Jong-Il's Malsseum(the words of Kim Jong-il) appeared in earnest from textbooks in the 1980s, when the 'Suryong system' was established. Kim Il-sung's Kyosis were twice as many as Kim Jong-Il's Malsseums. Malsseum were recorded in a form that supplements or replaces of Kyosi, and it reflected new trends in academia. In the foreword, only the teachings of Kim Il-sung that emphasized the necessity of history education and praised the "wisdom of the Korean people" were included. Kyosis in primitive society were centered on creative production activities, but were reduced from the 1983 edition, and Malsseums reflecting the social and historical principles of the Juche idea were added. Kyosis in the slave society were evenly recorded on class struggle, production activities, and culture, but in the 1995 edition, it was changed to reveal the 'excellence of Korean national culture'. Malsseum, which have been recorded since 1983, especially frequently mentioned Gojoseon, which is based on the 'Korean national firstism' of the 1990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1982 and 1983 editions emphasized the excellence of the Three Kingdoms culture and Goguryeo. From the 1995 edition, especially in Kim Jong-Il's Malsseum, 'Goguryeo,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was emphasized more. 'Balhae and Silla' emphasized the anti-aggression struggle and prosperity of Balhae and the culture of Silla. These Kyosis and Malsseums are faithful to the 'learning theory of Juche'. Since the 1990s, many Kyosis and Malsseums that reflect the 'Korean nationalism' and 'the theory of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to overcom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ses have been reflected.